

OCT.1, 1988

삼양_ 안전한 첨단 플라스틱을 만든 날

많은 사람들에게겐 평범한 날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의 안전을 지킨 날입니다

당신의 삶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삼양이 있습니다



華嚴書院 山仰會報

天地中間有二人	하늘과 땅 사이에 두 분이 계시니
仲尼元氣紫陽眞	중니가 元氣 라면 자양은 眞이로세
潛心勿向他岐惑	아무쪼록 잠심하여 딴 길에 현혹되지 말고
慰此摧頽一病身	쇠잔한 이 늙은이 병든 몸을 달래다오



5월 21일 개관한 元眞閣(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죄 없는 한 사람만 죽여도 왕의 일이 아니다

하서 김인후

삼가 사(史)를 살펴보니 사문(沙門) 척발 태무제(拓跋太武帝)가 개원(改元)한 태평진군(太平眞君) 칠년에 최호(崔浩)의 말을 받아들여 모조리 경내의 사문(沙門)을 거두어 갱살(坑殺)하였다. 이에 대하여 논하는 자는 혹 그 강정(剛正), 불혹(不惑)함을 들어 쾌(快)하게 여겼으나 그즉이 생각하면 지나친 일이며 더구나 위주(魏主)는 진정 이른바 간정 불혹한 자는 아니다. 강(剛)하고 의혹하지 않는 자라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고도 하겠지만 정(正)은 실로 가져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정이란 것은 중(中)의 체(體)이니 움직여서 중(中)이 되지 못하면 정이라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저 머리를 깎고 검은 장삼을 입고 산 속에 들어가 처하는 자도 역시 균등한 천민(天民)이니 처음부터 어찌 사람과 다름이 있겠는가. 이미 균등한 천민이라면 그 허무하고 황홀한 지경에 미혹하고 빠져들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진실로 마땅히 속마음에 측은히 여겨 그를 구원해 낼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거늘 능히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육(刑戮)까지 가한다면 그 사람들은 장차 어디에서 깨달을 것이며, 그 원한은 언제라도 풀리지 않을 것이니 어찌 그를 「중(中)」을 얻어 그 정(正)을 잃지 않은 자」라 이를 수 있으랴.

진실로 그 교화를 밝히고 그 양심을 인도하여 그 그르고 사벽(邪僻)된 꼬투리를 가만히 녹여 스스로 정에 따라가게 함만 어찌 같으랴.

무릇 하늘이 사람을 냄에 있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넣어 주고 그에 대한 자육(字育)이나 치교(治敎)의 책임은 군상(君上)에게 맡겨졌으니, 삼강(三綱)의 도와 오상(五常)의 덕은 곧 그가르쳐 나가는 기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군상된 자가 반드시 몸소 행하여 익히고 마음으로 터득하여 체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보고 느껴서 흥기(興起)하도록 할 것이며, 그 얕의 천심(淺深)과 존(存)의 후박(厚薄)이 있는 자에게도 또한 반드시 제도의 정미(精微)함과 품절(品節)의 자상하고 밝음으로써 가지런히 해 나간다면 장차 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자연 탄 길로 나갈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다.

오직 위에서 그 도를 밝히지 못하고 아래에서 그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단과 흐트러지고 어지러운 사설(邪說)이 우리의 다스림에 병을 주고 우리 백성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니, 정도(正道)가 이미 밝아지고 착한 도가 이미 행해진다면 어찌 다스림에 병되는 이단이나 백성을 현혹케 하는 사설을 근심할 나위가 있겠는가.

더더구나 백성은 우리 백성이다. 그 중에 무식한 무리들이 명교(名敎)가 더 없는 즐거움이 되는 줄을 모르고, 이단에 꼬여 넘어가 이적(夷狄) 금수(禽獸)에 빠져드는 일이 있다면, 임금된 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몸소 행하는 실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터득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가 제 마음으로 써 마음을 삼아서 그와 더불어 함께 성인의 도(道)에 이르러 가지 못하는 것이다.」라 해야 한다. 무릇 이와 같이 한다면 그들을 책하여 형옥에까지 이르게 될 까닭이 있겠는가.

이들테면 「사문(沙門)으로 장안(長安)에 있는 자들이 크게 병기(兵器)를 갖추고 있어 난리를 피하는 길로 걸어나가니 이는 마참내 제 목숨을 제가 끊을 기미인즉 이 기회에 모조리 다 없앴만 같지 못하다」하여 그 거짓을 제거하고 참을 고정시키는 꾀거로 나왔다면 장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가 무슨 죄이라.

전(傳)에 있지 아니한가. 「죄 없는 한 사람만 죽여도 이는 왕자(王者)의 일이 아니다.」 또 선유(先儒)는 말하기를, 「그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 글만 불태우며, 그 집은 집으로 이용하여 선왕(先王)의 도를 밝혀 그 도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했으니 이는 실지로 바꾸지 못할 공론(公論)이다.

저 사문들이 과연 먼저 우리 도가 향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이단은 등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서도 구차스레 사설을 따라갔다면 모르겠거니와, 이미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죄는 아닌데, 덮어놓고 죽이기만 한다면 이 또한 망민(罔民)의 정치에 가깝지 아니한가.

선왕은 사람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과 사람을 차마 못하는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다스림이 손바닥 위에서 돌리는 것과 같이 쉬웠으니,

반드시 마음을 바로 하여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 하여 백관을 바로잡으며 만 백성에 미치기까지 바름에 귀일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사기(邪氣)란 그 사이에 침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오히려 혹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더욱 심한 자를 잡아다가 백성을 어지럽힌 형(刑)으로써 다스려 분명히 그 죄를 바로잡는다면 또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과 같이 망민(罔民)의 형(刑)을 만들어 놓고 이를 제위(除僞)의 거사로 삼는다면 이런 수작으로 는 뒷자리에 있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당시에 구겸지(寇謙之)가 바야흐로 신임을 받아 이미 천사(天師)의 도장(道場)을 세웠고 또 도단(道壇)에 나아가 부록(符籙)을 받았으니 겸지의 말이 과연 선왕의 도에 합치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또한 일찍이 「불법(佛法)이란 허망하고 터무니없이 세상에 해만 되고 있으니 마땅히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했으니, 그렇다면 정륜(靜輪)의 건축은 그 비용이 만금을 헤아리고 진군(眞君)의 호(號)는 교무(矯誣)로 돌아가서 불보다 오히려 심한 것이 있는데, 그 도교(道敎)에 있어서는 급히 떠받들기를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저어하고, 사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루아침에 다 소멸시키고자 하여 여력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마치 동쪽에는 밝되 서쪽에는 어두우며 불을 피하려다 물에 빠지는 것과 같아서 그 물정 모르는 것만 많이 내보일 뿐이다.

비록 스스로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기지만 이른바 도교란 과연 무슨 물건인가. 또한 그 마음이 처음부터 사(邪)를 누르고 정(正)을 하여 하는 데에 순수하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의 사견(私見)을 쾌히 하는 데에 치우쳤으니 또 어찌 그 불혹인들 가상히 여길 것 있겠는가.

주사문론(誅沙門論)

謹按史，拓跋太武帝改元太平真君之七年，用崔浩言，悉收境內沙門坑殺之。論者或以剛正不惑爲快，竊以爲過矣。且魏主，非真所謂剛正不惑者也，剛而不惑則似矣，而正則實未之有也。正也者，中之體也，動矣而不中，則不可謂之正矣。惟彼髡其頭，縋其服，以入處於山林者，亦均是天民，初豈有異於人乎哉！既均是天民矣，則其所以迷惑沒溺於虛無恍惚之境，而不自覺悟者，固宜所惻然於中心，而思有以救之也。非惟不能以救之，而刑戮加焉，則將焉所覺悟，而冤且不釋矣。其可謂得其中，而不失其正者乎？曷若明其教化，而道其良心，以潛銷其非辟之端，而自趨於正乎？

夫天之生人也，賦之以仁義禮智之性，而其字育之任，治教之責，委之於君上，三綱之道，五常之德，卽其所以教之之具也。而猶必躬行以習之，心得以體之，使自有以觀感而興起焉。而其知之淺深與存之厚薄者，亦必齊之以制度之精微，品節之詳明，則且將不善是恥，而自無他岐之暇及矣。惟其道不明於上，而教不行乎下。故異端之荒誕邪說之紛紜，有得以病吾治而亂吾民，正道旣明矣，善教旣行矣，則何患乎異端之病治，邪說之亂民也。且況民吾民也，有見蚩蚩之徒，不知名教之爲可樂，而爲異端所誘，淪入於夷狄禽獸者，則爲君人者，必自反曰，我無躬行之實也，我無心得之功也。故人各自以其心爲心，而不可

與至於聖人之道，夫如是，則又何有於責彼，而以及於刑戮哉？若曰，沙門之在長安者，大具兵器，事涉謀亂，是乃自殄之幾也。不若因此遂盡滅之，以快其除僞定真之舉，則其在長安者，亦當誅矣。其餘則尙奚罪焉？傳不云乎，殺一不辜，便不是王者事，先儒有言曰，人其人，火其書，廬其居，明先王之道以道之，此實不易之公論也。彼沙門者，果能先知吾道之爲可向，異端之爲可背，而苟焉以趨之邪？旣不能知之，則非其人之罪也。從而殺之，是亦不幾於罔民者乎？先王有好生之德，不忍人之政，故其治天下，猶運之掌也，必且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以及乎萬民，莫敢不一於正，而亡有邪氣干其間者，如是而猶或有不之率焉者，則於是乎取其中之尤甚者，糾之以亂民之刑，而明正其罪，又焉有不可者乎？今也設罔民之刑，而爲除僞之舉，難以在上矣。當其時，寇謙之方見信幸，旣立天師道場，且詣道壇，以受符籙，則謙之之說，果可謂合於先王之道乎？又嘗以佛法虛誕，爲世費害，宜悉除之云，則靜輪之構，費以萬計，真君之號，歸於矯誣，爲有甚於彼者，而其於道教也，則汲汲然崇奉之，猶恐其不及，於沙門也，則必欲一朝盡滅之，不遺餘力，是猶明東而暗西，避火而溺水，多見其不知類也。雖自以爲不惑於異端，而所謂道教者，果何物耶？又其心初不純於抑邪與正，而特偏於快一己之私，則又何不惑之足尙乎？

河西는 왜 「佯狂爲奴論」을 썼을까?

金梓洙 광주교대 명예교수

河西는 중국의 역사를 정독하면서 屈原, 比干, 申生, 箕子 등 여러 인물들을 애도하거나 추모하는 시문을 많이 썼다. 굴원을 애도하는 글을 여러 번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잠기기도 했다.

폭군 紂에 충간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比干을 애도하는 「吊比干辭」를 짓기도 했다. 폭군 紂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옥에 갇혔던 箕子는 미친체하면서 천한 종노릇을 함으로써 道와 義를 지켰고, 微子는 충간을 듣지 않자 숨어버렸다. 比干, 微子, 箕子 이 세사람을 공자께서는 은나라에 세 어진분이 있다 하였고 중국에서는 三仁으로 추앙하고 있다.

河西는 比干과 微子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箕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佯狂爲奴論」을 썼다.河西는 왜 양광하여 노예가 되었던 기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論을 썼을까? 비간과 미자와 기자가 직면했던 역사적 상황이 어진 仁宗이 돌아가셨던 역사적 상황과河西의 처지가 너무 비슷했기에 이를 누구보다 절감했으리라 생각된다.

어진 仁宗을 잘 보필하여 요순과 같은 至治政治를 펴보고자 했던河西는 仁宗이 갑자기 승하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지극한 슬픔을 겪었다. 仁宗이 문정왕후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됨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河西는 「吊申生辭」를 통해 지극한 슬픔을 토로했다.

प्나라 헌공의 후비 여희가 아들 해제를 낳자

자기 아들을 태자로 삼기 위하여 太子인 申生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을때 이를 해명하면 父王 헌공의 마음이 상할까 근심하여 말없이 목을 메어 죽은 申生을 애도하는 글이다. 문정왕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仁宗의 처지와 너무도 비슷하기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들어 仁宗의 억울한 죽음을河西는 애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吊申生辭>가 아니라 <吊仁宗辭>인 셈이다.

仁宗이 죽고 부패한 외척세력에 의해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삶의 기로에 선河西는 깊은 고뇌에 싸일 수밖에 없었다. 比干이 택한 길을 갈 것인가 미자처럼 숨어서 목숨을 보전할 것인가, 기자처럼 양광위노할 것인가 깊이 고뇌하다가 기자가 택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退溪河西와 같은 어진 인재를 불러 쓰라는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하여 明宗이 여러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병을 핑계삼아 벼슬길에 나가지 않다가 끝내는 술에 취하여 미친 사람 행세를 함으로써 죽는날까지 節義를 지켰던 것이다. 이와같은河西의 행위는 양광위노했던 기자의 행위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河西의 「양광위노론」은 단순히 기자의 삶을 논평한 글이 아니라河西의 인생관과 역사관과 철학이 담겨있는 글임을 알 수 있다.

「양광위노론」에서河西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보다 천한

것이 없지만 욕되고 천한 것은 내 몸 밖에 있고 道와 義는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도 스스로 얻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比干처럼 무익한 죽음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道를 지키고 義를 행하여 명분없이 떠나 감에만 급급할 필요가 없다.”고 논평하였다.

“내 몸이 천하고 욕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道는 진실로 그대로 있으며 義는 일찌기 망하지 않는다.”고 결연히 역설했다. 즉 죽거나 도피하지 않고 죽는날까지 굳은 절의를 지킴으로써 不義한 외척 세력들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저항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묵묵히 행동함으로써 전국의 선비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소명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람의 일이란 변천이 있고 기회란 무상한 것인즉 亂世가 변해서 治世가 되고 禍가 변해서 福이 되는 경우라면 天下의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구이라.”고 역설했다.

“죽어도 무익한 죽음이라면 죽는 것만이 제일은 아닌 것이요, 떠나가도 명분이 없다면 떠나는 것을 조출하다고만 아니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곤 하여 그 權을 얻어 그 中을 씬에 있어서 마땅히 道로써 몸을 따르게 하고 義로써 命을 처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전하는 것이요, 그 몸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그 道와 義를 보전하는 동시에 끝내는 국가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河西가 죽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천하고 욕됨을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까닭은 무엇인가? 위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河西의

역사관을 엿볼수 있다. 역사란 늘 변하고 기회란 무상한 것인즉 亂世가 변해서 治世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다. 몸을 보전하는 것은 그것이 끝내는 국가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즉 난세가 변해서 치세가 될 때에 天下의 책임을 맡아서 요순시대와 같은 왕도정치를 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과 道와 義를 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양광위노하여서라도 내 몸을 보전하는 것은 道와 義를 보전하는 동시에 끝내는 국가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로 보면 河西는 仁宗의 승하로 明宗의 외척이 국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河西가 비분강개하여 시와 술로 울분을 달래며 자연 속에 숨어지내는 것같이 보였지만 明宗의 부름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절의를 지키면서 저항한 것은 요순같은 왕도정치를 언젠가 한번 펴보겠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河西는 제자들에게 선비정신의 씨를 심어 기르고, 귀양가 있는 미암 유희춘을 정성껏 보살피고 기묘명현들과 퇴계 남명 석천 소재 등 士林들과 공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격렬하게 문정 왕후를 비난했던 安瑞順의 상소 사건도 河西와 무관하지 않다는 맥락에 보아야 할 것이다.

河西는 수많은 詩文을 통해서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는 꿈을 노래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함을 한탄했다. 詩를 통해서 자신의 道學을 표현했다.

河西는 詩文으로써 그러한 꿈과 이상을 노래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략을 깊이 연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자가 하나라 禹王의 정치 이념을 담은 「洪範」을 저술했기 때문에 河西는 기자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書經」에 들어있는 「洪範」을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대한 원리가 담겨있는 大法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늘이 禹王에게 내려 주었다고 전한다. 周 武王이 기자를 찾아가 天道를 물으니 「洪範」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洪範」은 天下를 다스리는 政治理念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儒家의 天下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기에 漢代의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겼고 皇極개념은 宋代 哲學에 큰 영향을 끼쳤다.

河西는 고암 양자징을 가르치기 위해 「洪範撰著作卦之圖」를 저술했다. 洪範의 9조목인 ①五行 ②五事 ③八政 ④五紀 ⑤皇極 ⑥三德 ⑦稽疑 ⑧庶徵 ⑨五福·六極 中에 稽疑를 해설한 저술이다. 洪範에 대해 河西가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학자라면 누구나 洪範을 공부했을 터이므로 河西도 깊이 공부했으리라 생각된다. ⑦. 稽疑는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에 이를 결정하기 위해 시초점을 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가올 중대사를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다. 河西가 이러한 계의를 해설도해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洪範」에 통달했다고 본다.

“임금에게 큰 의문이 있으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고 귀족이나 관리에게 물어보고 거북점이나 시초점에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따르고, 거북이 따르고, 시초가 따르며, 귀족과 관리들이 따르고, 못 백성이 따르면 이것을 일컬어 大

同이라 하며, 자신은 안락하게 될 것이고, 자손들은 번창하게 되고 길할 것입니다.” 라고 洪範 稽疑에 기록되어 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결정할 때 모든 여론을 수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孔子가 禮記 禮運篇에서 말한 大同社會란 개념이 기자가 저술한 洪範稽疑에 나온다는 것이다. 河西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는 바로 요순시대와 같은 大同社會이다. 大同社會를 이루려는 정치이념이 담겨있는 「洪範」을 河西가 중시하지 않겠는가?

大同社會에 대한 것은 맨 먼저 「洪範」에 서술되어 있고, 禮記 禮運篇에 서술되어 있고 張載 西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조선조 유학자 가운데 西銘을 가장 중시했던 학자가 河西이다.

西銘을 매우 중시하여 「西銘事天圖」를 쓰기까지 했다. 이로 보면 河西 사상의 맥줄기 하나가 「洪範」, 禮記의 大同, 장재의 西銘으로 뻗어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사회를 이루려는 정치이념이 담겨있는 「洪範」을 깊이있게 연구한 흔적이 「洪範撰著作卦之圖」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河西가 왜 「佯狂爲奴論」을 썼는지 왜 기자가 저술한 「洪範」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河西가 佯狂爲奴하여서라도 끝까지 몸을 보전하여 道와 義를 지키고 국가를 보전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河西가 죽는 날까지 요순시대와 같은 大同社會를 이루려는 꿈과 이상을 버리지 않고 節義를 지키면서 끝까지 부패한 시대와 맞서 말없이 저항했는지를 「佯狂爲奴論」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佯狂爲奴論」은 河西의 삶과 일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河西의 인생관과 역사관과 철학을 담고 있는 귀중한 논설임을 알 수 있다. (존칭생략, 河西 13代孫)

양광 위노론(佯狂爲奴論)

論曰：人之所惡，莫甚於辱吾身，而道之所存，則君子不爲之辱焉。吾身之辱，莫賤於爲奴，而義之所安，則君子不爲之賤焉，辱與賤存乎外，而道與義存乎內，則吾知立乎其在內者，而其在在外者，吾當順以受之，無入而不自得焉。獨夫受，驕奢淫佚，天厭人困，成湯數百年之宗社，將移於異姓，盡言敢諫，有死而已。奉先存祀，有去而已。既不至死，又不可去，則固當全其身，而不必取其死之無益也。守道行義，而無急於去之無名也，吾身之賤且辱，有所不避，而所存所安者，初亦無待於外，迹雖嫌於捨禮義，而道固自若也，事雖涉於輕其身，而義未嘗亡也，何以言之？不可則止者，大臣之道也，與國同休戚者，貴戚之義也，況諫而囚，則無進言之路矣。國無人，則無可去之義矣。當其時，天下歸殷久矣。故家遺俗之承襲，流風善政之猶存，先王之德澤，洽於民者，蓋未嘗泯也。人事遷易，機會無常，或猶可以變亂而爲治，轉禍而爲福，則吾不知其任天下之責者誰也，豈不料其寧死而不見商之淪喪也。寧去而不待禍之及己也，死而無益，則不以死爲是也，去而無名，則不以去爲屑也，長思却顧，得其權而用其中，宜莫若以道徇身，以義處命，忘形於放曠，服役於厮賤，而惟處之安，有所不辱，此非以辱身也，乃以全身也。全其身乃所以全其道與義，而終欲以全其國家也。至於事之不必濟，時之不可復者，非其所豫慮也。事有或然，而時有適至，則不死不去，而甘心於賤且辱者，豈其他哉？世之人，或只以全身爲至，而不察於道與義之所存所安，則何足以論聖賢哉？《易》曰：內難而能正其志，又曰：箕子之明夷利貞，其至矣乎！謹論。

大同이란

孔子가 말씀하셨다.

옛날 큰 道가 행하여진 일과 三代의 英賢 한 인물들이 때를 만나 도를 행한 일을 내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三代의 영현들의 한 일에 대하여는 기록이 있다.

큰 도가 행하여지자 天下를 公器로 생각하여 ‘사사로 그 자손에게 넘겨 주는 일이 없고’ 어질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서로 전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誠信함을 講習하고 화목함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아버지만을 친애하지 않았으며, 홀로 자기의 아들만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늙은이로 하여금 그 날을 편안히 마칠 수 있게 하였고, 장년으로 하여금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로 하여금 의지하여 성장할 곳이 있게 하고,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폐질에 걸린 자로 하여금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하며, 男子는 土農工商의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남편의 집이 있었다.

재화라는 것은 헛되게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만 사사로이 감추어 두지 않았으며, 힘이란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그 노력을 반드시 자기 자신의 私利를 위해서만 힘쓰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는 폐색되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절도나 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깥 지게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세상을 公道를 天下가 모두 같이 하는 大同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禮記 禮運篇에서》

河西先生の道學과 性理學의 抄錄

申斗千 (成均館儒道會 전남본부회장 · 본회 부회장)

1. 개괄

河西 金麟厚 선생은 1510년~1560년에 생존한 人物로서 조선조 仁宗의 名臣이다. 長城 大麥洞에서 참봉 金齡의 아들로 태어났다. 字는 厚之, 號는 河西, 湛齋, 諡號는 文正이고 본관은 蔚山으로 金安國의 문하생이다.

河西는 1540년에 과거에 등과한 후 弘文館의 부수찬이 되었다. 그 후 尹元衡과의 당쟁을 염려하다가 乙巳士禍 후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性理學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李一齋恒 선생의 理氣一物說에 반대하고 理氣混合說을 주장했다.

河西 先生은 道學과 節義와 文章이 뛰어난 大學者로 太極圖說과 四端七情을 강론하였으며 天文地理, 醫藥, 律曆 등에도 조예가 매우 깊었다.

이에 正祖 20년에 大匡補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으로 追贈하고 文廟에 從祀 배향하였다.

2. 河西 先生の 道學

道學은 性理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中宗의 등극에 이어서 신진 士林들이 조정에 등용됨과 동시에 일어났던 학풍이다. 이는 堯舜이 행했던 道義政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연산군 시대의 탁했던 조정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河西 先生은 요순의 道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性理學을 통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天命圖를 통하여 우주와 인간이 하나됨을 밝혀 中和思想에 접근하고자 한 것을 보아도 이를 곧 알 수 있다.

3. 河西 先生の 學問

河西 先生이 宋代의 성리학을 연구한 것은 道學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河西先生은 평소 太極圖說과 西銘을 숙독하고 그 깊은 의미를 터득하였다.

太極圖說이란 周濂溪(1017~1073)가 창안한 것으로 이것이 성리학의 原始인 것이다. 우주의 생성과 만물의 형성에 이르기까지를 도해하고 거기에 해설을 붙인 것이 태극도설이다. 그러므로 이를 알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西銘이란 우주와 인간관계를 설명한 張橫渠의 글이다. 河西는 태극도설과 서명을 학문 연구의 기본서로 삼았으며, 이 둘을 통하여 도학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었다.

太極은 德性의 本領이며 西銘은 학문의 기틀이니 두 가지가 모두 없어서는 안 된다고 河西는 역설했다. 다시 말해서 人道에서 天道에 이르는 中和思想의 본지로서 인간 문제에서 우주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

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서는 다름 아닌 小學과 大學에서 이를 찾아냈다. 왜 小學과 大學에서 찾아냈을까? 소학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 도야의 방법이고, 대학은 소학의 規範을 완성하는 德性을 함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小學의 가르침이 下學이라면 大學의 가르침은 上達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소학을 읽고 나서 대학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下學으로부터 上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道를 인간의 가치로써 구현하고자 한 것이 河西의 道學이다. 河西가 道學의 정치를 至治라고 한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지극한 道로써 民治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堯舜의 정치이다. 요순이 이론 至治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天命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河西는 大學, 論語와 함께 詩經, 書經, 周易을 공부하고 태극도와 서명을 익혔다. 이는 성리학 연구와 함께 시경을 통하여 性情의 올바른을 구하고 서경을 통하여 人心의 위태함을 경계하고 道心의 은밀함을 발견하고, 또한 周易을 통하여 萬物의 형성과 그 운행에 대한 실체를 터득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 연구를 통하여 마침내 인간과 우주가 하나임을 밝히는 圖說을 완성하였으니, 그것이 河西의 「天命圖」이다. 天命圖는 천명을 설명하는 학문적 精髓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河西는 요순의 至治를 이루기 위하여 道學政治를 표방하고 그와 같은 세계에 들기 위한 방법으로써 宋學을 익혔으며 나아가 詩·書·易을 이해하여 마침내 天命圖를 제시하여 자신의 학문적 결실을 이룬 것이다.

河西의 性理學과 天命圖를 살펴보면 성리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天命圖는 河西 道學의 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천명도의 효시는 추만 鄭之雲이다. 추만이 천명도를 그리게 된 것은 金正國이 귀양에서 풀려나 서울로 가게 되자 자기의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朱子學이 들어오자 陽村 權近(1352~1409)은 태극도를 보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天人心性合一之圖」를 그렸는데, 제목처럼 하늘과 인간과 心과 性은 합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추만은 「太極圖」와 「天人心性合一之圖」를 참고하여 천명도를 그렸는데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李退溪와 奇高峯(大升)의 사단칠정에 관한 논변이 일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추만 정지운이 만든 천명도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河西에게 가지고 와서 잘잘못을 물었다는 점이다. 河西가 옥과 현감을 그만두고 淳昌 점암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을 때 추만은 자기가 그린 천명도를 갖고 와서 보였다.

천명도를 본 河西는 天道의 이치에 감탄하는 글을 써준 다음에 느낌도 말하여 주었다. 그 후 추만의 천명도를 보고 이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道學을 담은 새로운 천명도를 그렸다. 이것이 河西의 「天命圖」이다. 이 때 만들어진 河西의 천명도는 조선조 성리학을 연구하는데 보배로운 자료가 되었다.

天命圖에 대한 이론적인 논변은 明宗 13년 高峯 奇大升이 과거에 합격하고 退溪와 만난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退溪와 高峯의 논변이 시작된 때는 河西가 추만을 만나서 천명도에 대한 後題를 써주었던 明宗 4년으로부터

9년 후의 일이다.

河西가 추만의 천명도를 보고 적은 글에 있는 바와 같이 하서 성리학의 중요한 특징은 萬物의 化生 현상을 天命에 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周堦계는 태극도에서 만물의 生生은 無極에 根源을 둔 태극의 작용으로 보았다. 주자는 이를 理라고 하였다.

그러나, 河西는 “하늘의 道가 길고 멀어서 다함이 없으니 일찍이 生生의 이치가 간단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만물의 生生은 깊고 그윽한 天命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태극을 理로 이해하고 理의 작용에 의하여 만물이 생겨난다는 태극도의 정신보다 천명을 더욱 중시한 사상이다. 이는 하서의 「敬」의 식과 일치한다.

4. 河西와 退溪

高峯 奇大升과 退溪 李滉과의 사이에서 “太極과 음양을 一物로 볼 것인가 二物로 볼 것인가” 하는 논변이 많이 있었는데, 高峯이 이를 河西에게 묻자 一物說이 옳음을 말하였다. 글리나 退溪는 이듬해에 또 다시 “太極과 陰陽은 二物이다.”는 편지를 전해 왔다.

이렇게 하서와 退溪의 의견이 다르자 高峯이 河西와의 논변 내용의 전말을 모두 적어서 退溪에게 질문하였는데 退溪도 결국 河西의 견해를 인정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河西의 天命圖는 조선 성리학 발전의 토대를 쌓는 것이었고 太極理氣에 대한 견해 또한 매우 깊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현대의 신 십계명

◎ 남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 매사에 해를 기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 당신의 동료 인간들, 동료 생물들, 나아가 세계 전체를 사랑과 정직과 성실과 존경으로 대하라.

◎ 악을 못 본 척하지 말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잘못된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라.

◎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라.

◎ 모든 것을 시험하라.

늘 자신의 생각을 사실에 비추어 점검하고, 설령 소중히 믿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폐기할 태세를 갖추어라.

◎ 검열을 하지도, 이의를 막으려 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낼 권리를 늘 존중하라.

◎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견해를 수립하라. 남들에게 맹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라.

◎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라.

-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에서

東아시아 思想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 사상

김재수 편집주간

인간은 서로가 존경받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질 높은 문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문명의 혜택 속에 편리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전지구촌에는 전쟁과 폭력과 기아와 질병이 끊이지 않고 환경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

한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孔子가 말한 大同社會를 꿈꾸어 왔다. 손문, 장개석, 모택동, 울곡이 大同社會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大同社會는 모든 사람이 大道를 알아서 행동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大道란 생명요 진리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인 것이다. 大同사상은 孔子가 요순시대의 大同정치를 사모한 것이다.

유교는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를 信과 義에 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道가 존재하는 양상도 달라져야 한다. 孔子는 時中の 道를 강조하였다.

孔子는 때를 아는 聖人이다. 栗谷도 政治는

때를 아는 것이 貴하고 實을 힘쓰는 것이 金요 하다 했다.

儒家의 道, 佛教의 道, 기독교의 도(로고스)도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9·11테러, 아프간에서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양은 동양에서 배워야 한다.

河西 先生의 사상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인권 사상, 南北이 통일할 수 있는 원리가 河西 先生의 사상에 담겨 있다.

과학의 힘으로 물질은 얼마든지 생산 가능하다. 주종관계가 사라진 대중사회다.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인가?

요순 사상을 회복하자는 것이 河西 사상이다. 二帝三王(요, 순, 우, 탕, 문왕) 시대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2,500년 전 위대한 사상이 孔子, 孟子를 통해서 요순 사상을 알 수 있다. 宋代의 程朱學이 孔孟을 밝혀주었다.

한국에 옛날 철학이 있었지만, 소수림왕 2년에 평양에 태학이 세워지고, 신라에 국학, 고려에 국자감이 세워진다.

이때에 유학이 받아들여진다. 조선에는 成均館이 세워진다. 성균관은 3,000년 전의 음악학교였다. 균등하게 이루려는 뜻을 담고 있다.

程朱學을 道學이라 한다. 大道를 통하면 어떤 종교도 통한다. 孝經만 잘 알아도 된다. 제일 좋은 말이 아버지란 말이다.

儒敎人들은 知天만 알고 事天을 모른다. 하늘을 아는 知天만으로는 안 된다. 知天에서 하늘을 즐기는 樂天으로, 樂天에서 親天으로, 親天에서 事天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大孝요 大聖이다.

河西先生은 西銘을 들어 事天을 이야기했다. 事天의 경지에까지 이른 분이 河西先生이다.

높은 진리도 알아야 하지만 現實을 알아야 한다. 분수지리가 있다.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이다. 구체적인 현실로 내려와서 분수에 맞게 해야 한다. 格에 맞아야 한다. 그것이 禮다. 政治, 社會制度, 모든 것이 禮다.

도교와 불교는 淸淨寂滅한 세계를 추구한다. 유교도 무욕 청정해야 한다. 다투는 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것이 유교다.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늘 걱정해야 한다. 잠시라도 천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유학자가 아니다.

최고의 정치가 무엇이나? 4,300년 전 요순시대의 이상사회, 즉 平和, 相生, 온천하가 一家가 된 사회이다.

선진국이 될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 요순시대 사상은 三事 곧 ①正德 ②利用 ③厚生을 이룩한 사회다. 現代社會는 이 가운데 正德이 없다.

大同社會는 역대 先王이 다 좋아했다. 요순시대를 道學이 분명하게 말했다.

二帝三王之道를 말한 분이 河西先生이다.

중용의 솔성지도(본성)와 天命을 중요시한 분이 河西先生이다. 이런 河西先生을 누구보다도 잘 안 분이 정조 대왕이다.

기 고봉은 성리학에 뛰어난 분이다. 퇴계 선생과 河西先生의 영향을 받았다.

하서는 퇴계와 동창생이다. 절친했다. 퇴계가 안동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퇴계 선생은 70년을 살아서 제자가 많고 저술이 많다. 하서 선생은 50년을 살아서 제자가 적고 저술이 적다. 그러나 質로 보면 最高다. 명석하고 節義가 있다. 中節을 갖추었다. 天命圖에서 中和를 강조한 분은 河西先生밖에 없다. 大道를 河西先生같이 잘 설명한 분이 없다. 대개 공부하는 法을 초월하여 妙神의 경지에 들어갔다.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退溪선생도 妙神의 경지에 들어간 분이다.

※ 강의내용을 녹음하지 못하고 메모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문맥상의 잘못은 필자에게 있음

**❶ 河西 金麟厚 先生 추모 秋享祭 봉행
초헌관에 柳承國 한국학술회원**

河西 김인후선생과 鼓岩 양자징선생을 추모하는 秋享祭가 9월 20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향제는 유한상 성균관 고문, 오인균 산양회장, 변온섭 전 성균관 중앙유도회장, 송준빈 남간사 도유사, 임동의 전북 향교재단 이사장, 정상윤 광주향교 전교, 박태근 본부회장, 김진웅 문정공파 도유사, 이청 장성군수와 전국 각지의 유림과 후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전례에 따라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초헌관에는 유승국 박사(필암서원 신임 원장), 아헌에는 최상옥 남화토건 부회장, 종헌에는 권오승 씨가 술을 올렸다.

이날 집례에는 朴榮昱 전남 향교 재단사무국장, 진설에는 吳昌均 선비학당 서우회장 대축에는 申謹植 한국한시협회 이사, 집사에는 金鍾奭 李成烈 梁亨根 金相玉 등이 수고하였다.

祭享을 마친 후 柳承國 신임 원장이 「동아시아의 사상기조와 하서 선생」을 주제로 강론을 하였다.

“河西 先生의 道學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마땅히 가야할 길인 道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해결의 방안이 유교의 道學과 하서 선생의 道學에 있다고 본다.”고 역설하고 事天과 樂天의 경지에 까지 이른 河西先生의 인도주의 정신과 中和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큰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8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열강을 한 柳承國 원장의 강연을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였다.

**❷ 山仰會 임원회의 개최
2008년도 하반기 사업 논의**

지난 10월 16일 예원식당에서 오인균 회장을 비롯하여 신두천 부회장, 김용숙, 김재수, 박래호, 양희택, 김장수, 김종환, 이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래호 총무 사회로 임원회의를 열어 2008년도 하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양회 활성화 방안으로 산양회를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소그룹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방안, 내년부터 장성군 투어 관광을 활용하여 유적지 탐방을 하자는 방안, 필암서원 홈페이지 개설 방안, 정회원은 철저하게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준회원은 널리 개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4년 동안 산양회장으로 수고한 박종달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했다.

2008년 12월 정기 총회 초청강사로는 柳承國 필암서원 원장으로 정하고, 김재수 편집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일임했다.

❸ 총회 준비를 위한 결산 및 편집회의

2008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할 결산 및 2009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와 산양회보 12호 편집을 위한 회의가 12월5일 3시에 대동문화에서 열렸다.

吳仁均회장, 金容淑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김재수, 양희택, 박래호, 김장수, 이충원씨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양희택 재무가 이

준영감사에게 감사받은 2008년도 결산 서류를 회장에게 결재받고,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 받고 총회준비를 협의했다.

이어서 열린 편집회의에서는 김재수 편집주간이 제출한 산양회보 12호 편집내용을 확정짓고 인쇄에 넘겼다.

④ 朴煥圭(전남대 명예교수)

『河西 文學의 道學的 理解』 강연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린 하계 학술강연에서 박준규 박사는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로 강연했다.

하서의 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특히 朱子の 성리학적 문학관이 河西詩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를 논의하고 河西詩에 반영된 도학적 문학관을 평가하였다.

道學詩가 많은 河西의 詩를 이해하는데 좋은 안내가 되었다.

⑤ 松石 朴鍾達 전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4년간 본회 회장 맡아 후원

지난 4년간 본회 회장을 맡아 이끌어 오면서 본회를 적극 후원해 주시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송석 박종달 전 회장께 회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2008년 정기 총회에서 본회 오인균 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했다.

⑥ 필암서원 亞獻官으로 秋享 집례 9월 20일 본회 崔相玉 고문

본회 崔相玉 고문(남화토전 부회장)이 지난 9월 20일 필암서원에서 거행된 秋享祭에서 亞

獻官을 맡아 수고하셨다.

崔相玉 고문께서는 본회 활동을 적극 후원해 주셨다.

⑦ 책임연구위원 李炳珪 회원 병문안 박래호 총무 부친 병문안도

李炳珪 산양회 책임연구위원이 입원하고 있어 양희택, 김재수, 박래호, 이충원 회원이 병원을 찾아 병문안을 하였다.

병세가 호전되어 모두가 기쁜 마음 가눌 수 없었다. 박래호 총무의 부친께서 낙상으로 와 병중이어서 병문안 하였다.

⑧ 河西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 실행위원장에 본보 김재수 편집 장선임

하서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미조리 식당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위원장과 집행부서를 선임하고 광주 준비위에서 제안한 안건을 심의 인준했는데, 본회 회보 김재수 편집장을 실행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⑨ 朴來縞 총무 動靜

廣南 居昌郡 주최 全國漢詩白日場 考選
光州廣域市 光州鄉校주최 全國漢詩 白日場 考選

선비학당 書友會 조직 書院發展과 年末불우 이웃돕기 사업전개

長城郡 大同會長으로 年末불우이웃돕기 사업전개

❶ 柳承國 박사 필암서원 원장 취임

평생토록 동양 철학 연구한 석학

한국학술원 회원이며 평생토록 東洋 哲學을 연구해온 柳承國 박사를 필암서원 원장으로 추대하여 취임하였다. 신임 유승국 원장은 <동양철학 연구>, <한국 사상과 현대>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학술원 회원에 선임되었다.

高亨坤 원장이 돌아가신 후 오래도록 院長을 추대하지 못하였는데, 儒學에 정통한 柳承國 박사의 취임을 이 고장 儒林들과 山仰會員들은 환영하였으며, 2010년 河西 先生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❷ 하서 김인후선생 탄신 500주년 준비위결성, 공동위원장에 金正洙 전 대종회장

하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문중 준비위원 회의가 10월 26일 서울 미조리 식당에서 열렸다. 준비위원으로 선임된 30명 가운데 문중 원로이신 김태규, 김노수 종찬을 비롯하여 김정수, 김동준, 김달수, 김진웅 등 17명이 참석하여 광주 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하서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준비를 위한 활동 보고 및 제안 사항을 김상운으로부터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김동준, 김정수, 김관중 공동위원장 가운데서 대표 공동위원장으로 김정수 전 대종회장을 추대하였다. 김정수 대표 공동위원장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1년여 동안 광주 준비위원회 모든 활동과 재정을 인준하기로 승인하였다. 범 추진기구 명칭을 <河西 先生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로 결정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범추진기구 조직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앞

으로 5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관한 모든 문제는 김정수, 김동준, 김관중 공동위원장, 김달수 대종회장, 김진웅 문정공파 도유사(뒤에 추가 선임)와 김인수 재정위원장, 김재수 실행위원장이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장: 김정수(대표), 김동준, 김진웅, 김관중
위원: 김태규, 김노수, 김택수, 김달수, 김인수, 김성수, 김재수, 김방수, 김을수, 김양수, 김성, 김상홍, 김상욱, 김동철, 김상엽, 김상렬, 김상준, 김상윤, 김영, 김병주, 김병의, 김면규, 김영규, 김병건, 김병기, 김재억

❸ 광주시에서 河西路 지정 고시

중외공원 입구에서 태령동 담양 경계까지

필암서원에서는 여러차례 광주시 中央路를 河西路로 개명할 것을 추진해 왔으나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河西路가 지정되었다. 河西 先生 동상이 있는 중외공원 입구에서 양산동, 용전등을 거쳐 태령동에 이르는 도로를 河西路로 지정하였다. 이 길은 박물관로, 지산로, 태령로로 불렸으나 이번에 河西路로 통합해 바꾼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金宅洙 전 문정공파 도유사와 金秉植 광주시의원의 수고가 많았다.

❹ 河西學術財團 후원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 증보판 발행

김택수 전 도유사가 발행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초중고학생에게 배부하였던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 증보판 3000부가 발행되었다. 증보 발행은 河西學術財團의 후원을 받아서 간행되었다.

⑤ 관람객 날로 증가, 1만명 관람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인 元眞閣의 관람객이 날로 증가하여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시관 담당자 고재운씨가 작성한 방문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에 개관한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의 관람객이 1일 평균 107명에 달하여 6개월간 1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필암서원 정화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유교문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⑥ 楊萬鼎道色掌 후임에 林東翼氏

필암서원에서는 오랫동안 필암서원을 위해 수고해 오신 楊萬鼎道色掌의 후임으로 林東翼(전북)향교 재단이사장을 위촉하였다.

⑦ 한국고전 번역원 朴錫武 원장

河西 선생에 대해 경향신문에 기고

지난 10월 9일 한국고전 번역원 朴錫武 원장이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를 대동하고 김재수, 김진석과 함께 필암서원, 맥동 하서 생가, 통곡대, 하서 선생 묘소를 답사하고, 경향신문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란 45, 46회에 걸쳐 패악한 정치에 분노하여 자연에 숨은 도학자 김인후를 연재하였다. 朴원장은 河西 선생의 생애를 역사적 관점에서 새로이 평가하였다.

그 후 朴 원장은 全南大 김운수 총장을 만나서 호남을 대표하는 대학자인 하서를 연구하는 河西研究所를 全南大에 두어서 호남학 진흥에 앞장설 것을 요청하였다.

⑧ 文靖公 潛庵 金義貞 선생 神道碑 제막식에 초청받아 金鎭雄 도유사 참석

지난 10월 11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에서 거행된 잠암 김의정 선생 신도비 고유식에 초청을 받아 김진웅 도유사, 김진오 총무, 김종환 별유사가 참석하였다. 김의정 선생은 河西先生과 道義之交를 나눈 분이다.

入會를 환영합니다

光州 東區 李炫浩	全南 長城 金兩洙
南區 金炳鴻	長城 金碩基
北區 車政演	潭陽 林魯德
北區 朴煥圭	羅州 李材珉
北區 李正熙	寶城 金在京
	和順 徐在豐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주)삼양사(광고료)	2,000,000원
전남도청 문예	2,000,000원
光州 東區 崔相玉	1,100,000원
서울 邊璵燮	200,000원
光州 南區 申斗千	140,000원
산양회 고문 金容淑	100,000원
산양회 부회장 金梓洙	200,000원
산양회 부회장 金鍾桓	100,000원
和順 徐在豐	100,000원
光州 北區 金寅洙	200,000원
光州 北區 金鎭午	100,000원
長城 朴來鎬	100,000원

알림

1. 본회 제22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12월 23일(화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 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왜 河西先生은 「佯狂爲奴論」을 썼는가? 一金梓洙 (광주교대 명예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832-4562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學歷 및 經歷: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흥곤 씨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淸齋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鑑雄씨(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감)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絳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淸齋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淸齋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 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 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윤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집 발간. 吳仁均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전남대 명예교수)「河西 문학의 道學的이해」라는 주제로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